

2015년 11월 9일 새벽말씀(편집본)

네, 방금 기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보게 되었어요.

밤에 잘 때 밥을 늦게 먹고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굴이 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기도하다 보면 얼굴이 붓습니다. 피곤하다 보면 옆드려서 잡니다. 어렸을 때 하던 짓을 또 합니다. 아기처럼 옆드려서 잡니다. 그러면 얼굴이 막 붓습니다. 그런 것을 속이려고 얼굴을 수술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화면 조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보냅니다. 그래도 얼굴이 부었든지, 눈탱이 부었든지 간에 보면 좋잖아요. 선생님도 그러하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이래도 보면 좋고, 저래도 보면 좋습니다. 단장 안 해서 보기 싫게 한 것은 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기를 따라서 얼굴이 붓고, 또 기도하다 보면 제대로 못 꾸미고 할 때도 있습니다. 화면에 잘 나오라고 그것을 일부러 꾸밀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또 단장을 제대로 못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화면은 그렇게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선생님이 보낸 말씀 테이프를 보고 “선생님이 많이 말랐다. 너무 힘든가 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살만 찌고 텅굴텅굴 편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데 그게, 시집가서 시어머니 하나만 모셔도 힘든데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시집 간지 오래 되었다고 해도 가면 갈수록 낡은 자녀들을 기르는데 더 엄청나게 신경 써야 되고, 나이를 먹어도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더 사랑하고, 더 모시고, 더 섬기려면 더 잘 해야 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참 모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뜻에 차이가 있어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마음 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인간을 향해서 인간만큼만 바라고 원해도 그만큼 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모르면 못 합니다.

알아야 모시고, 알아야 섬기고, 알아야 자랑하고, 알아야 사랑하고, 알아야 인정합니다. 모르니까 못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부라고 해도.

결혼했을 때 자기 남편과 사랑하고, 끌어안고 살아도 모르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부들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로 4백 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나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며, 사람들이 바라던 일입니까?

그것을 그렇게 몰랐던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일인지. 본인들이 큰일인지 알아야지, 누가 압니까. 딴 사람들이 압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받고 행하는 행사를 이집트 사람이 알아야 됩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반대한 것입니다.

반대하니까 ‘이상하다. 뜻이 아닌가보다.’ 했습니다.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반대한 만큼 큰 행사였습니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 버린다고 했습니다. 다 멸종시킨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마만큼 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다 시대를 따라 달려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속에 있을 때는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나오면 손을 펴는 것입니다. 습관이 돼서 어린아이가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났을 때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가야 펴집니다. 태속에서는 축소판입니다. 다 오므리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큼니다. 금방 큼니다. 막 큼니다. 어린아이는 며칠 만에 봐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구시대에 있다가 새로운 시대에 왔으니까 그냥 일순간에 새로운 시대를 만났기 때문에 막 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크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게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4000년 동안 기다렸던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큼니까.

그런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내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4000년 동안 있던 사람들을 끄집어냈습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애굽에서 종 되었던 사람을 종에서 벗어나서 나게 하듯이. 벗어나면 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구약 시대에서 끄집어냈으니 종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끄집어냈으니까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은 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종 문서를 태우는 일을 했으니 얼마나 큰일입니까. 종으로서 더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역사요, 흑암에서 나오는 역사요, 죽음에서 나오는 역사이니 얼마나 큼니까. 그것을 모르고 안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옛날 사람만 자꾸 이야기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그때 못 맞이한 사람은 몰라서 못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일어날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리 가정의 큰일도 아버지가 형제에게 시켜서 시작합니다. 형제 가운데 하나 시켜서. 아버지가 직접 안 하는 일은 형제 가운데 하나에게 시키고, 같이 협조합니다. 형제 가운데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시대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아들이고. 그래서 아들의 혼인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4000년 동안 선포한 시대의 혼인잔치, 주인공 예수님의 혼인잔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신부들이 신랑을 죽이다니... 이런 괴상망측한 역사...

예수님이 기어코 다시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은 다 죽는다. 그러나 죽어도 그냥 죽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니가 대신 죽는다고 했으니까, 이들이 따르면 혼인잔치를 또 하자.” 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자기의 좋아하는 사람을 뒤집어쓰고 또 하신다 하셨습니다. 자기 애인을 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애인을 갖고 하니까 자기가 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좋아하고, 아는 만큼 따르고, 아는 만큼 섬기고 위하고 받들고 사랑함

니다.

이 시대는 신약의 아들같이 대하는 역사에서 신부같이 대하는 역사의 행사가 얼마나 큼니까.

지구촌의 섭리역사를 크게 나누면 구약, 신약, 성약인데, 그 큰 섭리역사!

아담 때는 깨졌습니다. 본래 뜻대로 안 되고, 4000년 동안 종의 역사를 하기를 했지요.

신약 때 예수님 때, 그 원하는 대로 안 됐지만, 깨졌지만 2000년 동안 그 나름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성약역사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깨져도 역사는 갑니다. 골동품은 깨져도 박물관에 정리해 놓지 않습니까. 깨졌어도 그것 밖에 없으니까 깨졌으면 깨진 대로, 금이 갔으면 금이 간대로 합니다.

성약역사가 얼마나 큰 역사이고, 큰 행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와 같이 반대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다고 못 합니까?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립니다. 철저히 모든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습니다. 행하며 가야 되겠습니다.

모두 닦고 깎으라 하니까 그 말을 잘 모릅니다. 무엇을 깎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닦아야 될 것인지 잘 모릅니다. 자기의 무엇을 깎으라는 이야기인가. 코를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을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눈썹을 깎고 머리를 깎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신랑 마음에 들게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결혼하기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니 그 사람의 마음에 들게 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우리는 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너무 너무 엄청나게 깎을 것이 많습니다. 많이 깎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깎아야 됩니다. 다듬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신부가 제일, 결혼해서 제일 갖출 것이 뭔지 압니까. 더러우면 안 됩니다. 머리로 자주 감고, 때도 자주 밀고, 분장하고, 옷도 깨끗이 입고! 그게 기본입니다.

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 신랑 사랑하는 것, 모시는 것, 좋아하는 것, 애정, 그리고 그때그때 제스처, 그리고 에티켓 이런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랑을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겠구나. 아,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빵을 좋아하는구나. 빵을 사다가 꼭꼭 대접해야 하겠구나. 아,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과일을 좋아하네. 아침 식사는 안 하는구나. 이런 것을 해 주어야 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아서 톡톡 해 주고 뛰고 달리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신랑을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결혼하면 그렇잖아요. 결혼 안 하면 바울 선생이 말한 대로 “이 몸이 누구를 기쁘게 해 줄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기쁘게 해줘야지. 내가 믿고 나를 구원시킨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앞에 결혼했으니까, 6000년 만에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다가 이혼하면, 웃기는 사람과 정붙여서 살다가 이혼하면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대신해 줄 때까지는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메시아와 우리가 살다가 이혼해 보십시오. 그거 진짜 말로 못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연구해서 이혼하지 않도록!

누구 말마따나, 어느 가정처럼 이혼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남자의 눈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이혼 당하고 세상으로 쫓겨나면 안 됩니다.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하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무조건! 결혼에서 제일 큰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떨어지면 정 떨어져서 못 삽니다.

사랑 문제만 없으면 혹시 잘못해도 용서해 주고 다독이며 “잘해봐.” 그러니까.

그러나 사랑이 망가지면, ‘이것저것 다, 핵심까지 잘못하니 무엇을 갖고 희망을 걸랴?’ 혼자 한숨을 쉽니다. 여자도 그러하고 남자도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문제! 알겠어요? 보이는 사랑하는 주와 사랑문제! 이런 것을

철통같이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랑과 같이 그렇게 서서히 눈을 뜨다가 신령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고 위해 주고 받들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둘이 끌어안고 침대에서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기도 낳고, 그리고 살림살이 해 나가고, 아름답게 살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멋진 집을 짓고 살고, 또 좋은 세계에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둘의 책임분담입니다. 둘이 한 몸 되어서 막 부지런히 해 나가야 자녀도 낳고, 좋은 환경에서 살게 되고, 얻게 됩니다.

둘이 잘해서 잘 사는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누가 금 보따리를 갖다 줘니까.

본인들 둘이 자꾸 살림살이 일으키면서 계속 부지런히 나가면 잘 돼서 하늘의 축복받고 자신도 잘해서 축복받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커지는 것입니다.

둘이 항상 그렇게 살면 무슨 이혼을 생각하며, 누가 싫다고 합니까? 서로 좋아서 “너 아니면 못 살아. 나 아니면 못 살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받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깎 닦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모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지요. 내가 시대에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고, 주가 원하는 것을 썸박하게 그것만 해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사는 것! 맞추고, 닦고, 깎고!

참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 보이는 선생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보인다고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평생 안 보여도 하나님은 뜻

을 다 퍼신다. 스스로.”

“선생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에게 한번만 꿈에 보여주세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본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뜻이 아니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얼굴만 그렇게 그대로 안 보여 줍니다. 다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날 보여 줍니다. 대개 보여 줍니다.

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보여 주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보여 주고, 이것 해 달라고 했을 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해 달라고 했을 때 언제 하나님이 직접 무엇을 사다 주었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해서 사역자로 삼고 하십니다.

어제 내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시를 25편 썼습니다.

밤 10시까지 썼습니다. 그 시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이 두 가지인데 지구가 돌면서 계절이 바뀌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사역자로 삼았습니다.

- 시 -

남풍 부니 봄이 오고
동풍 부니 여름 오며
서풍 부니 선선한 가을 오고
북풍 부니 추운 겨울 오는구나

이런 시가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내가 동시에 본 것이 아닙니다. 앞 창문과 뒷창문을 열어놓으니 맞바람이 치는 것을 보면서, 영감으로 들어 가서 쓴 것입니다. 맞바람이 치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남쪽 나라는 따뜻하니까 따뜻한 바람을 싣고 옵니다. 그래서 봄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름 땀별은 태양에서 바람이 불게 해서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서늘한 가을은 서쪽에서 서늘한 것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가을을 만듭니다.

그리고 북극지방의 빙하의 세계에서 찬바람을 몰아와서 눈이 오게 만듭니다. 영하 1도만 되면 눈으로 변하잖아요. 물을 끼얹었을 때 영하 1도가 되면 그것이 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만들어서 눈을 뿌리잖아요. 스키장에 보면 물을 뿌려서 눈이 되잖아요. 영하 1도가 돼야 물을 뿌리면 눈이 내려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서

뜨거운 태양을 중심해서
공전, 자전 조정하사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오게 하는구나

그 신비하게
누가 창조했나
위대하게 구상하시고
창조하였도다
역시 그는 전지전능하시도다

이렇게 어제 시를 썼습니다. 그런 시를 25편 썼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르쳐서 썼다는 시인데, 위신이 있잖아요. 장엄한 시들이 있습니다.

- 시 -

오늘 내가 무엇을 했나
제자들이 나를
궁금하게 생각한 이 날
눈 빠지게

눈에 티가 들어간 것같이
눈 아프게 기다리며
오지 않는 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랑하는 자들
오늘 내가 무얼 하고 있는가
기다렸던 자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밝히리라

이런 시가 또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면 무엇을 증거하고, 이야기하고, 뭘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부업같이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받들고 위하고 신부된 도리를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1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돈을 벌고 경제를 펴고 자기 개인 일을 하는 이것은 두 번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전업으로 육적인 것을 먼저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모두 했습니다.

여러분도 겪어봤겠지만 사람들이 행해보아야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행해보고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인 자신이 행해보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뜻을 펼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구원도 못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못 시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는 것을 중심해서 율법을 다 이룬 것이나 똑같다. 그 속에 다 들었다.”

세밀히 보면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꿀 속에, 세밀히 보면 갇은 꽃가루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한 그 속에 다 들었습니다. 충성도 들어 있고, 열심도 들어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그런 입장에서 “다하라. 목숨을 다 하라. 끝까지 다 하라.” 그런 것입니다.

모르면서 섬기면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지요. 과거에 모르면서 한 일들을 보십시오. 알면서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꼭 알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나라가 우리가 하루 동안 간다고 가지는 곳입니까? 1년 가서 가지는 곳입니까? 우리가 100년 간다고 하늘까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러하고, 구시대와 신시대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역사와 신약역사가 그렇게 차이가 있고, 신약역사와 성약역사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과 저렇게 하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버리게 되고, 사망으로 가게 되고, 흑암의 계시를 받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몰라서 흑암의 주관을 받게 되고, 어둠의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열심히 하며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하고!

결눈을 팔면 안 됩니다. 이성에 결눈 팔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본 뜻을 못 갑니다. 물질에 결눈을 팔아도, 세상의 어떤 것에 결눈 팔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가운데 반드시 신부로서 도리를 다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야 될 것! 닦고, 깎고 가라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큼니다.

여러분들이 닦고, 깎고 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닦고 깎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상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사람들!

구시대 오래된 사람들은 경험을 토대로 한다고 하지만, 다시 불을 붙이려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온 사람들이 냄새를 풍깁니다.

이제 시집 간 사람이 냄새를 풍깁니다. 이제 온 사람들이 냄새를 풍깁니다. 신부 냄새를.

“나는 그를 위해 살아갈 거야. 오직 하늘만 위해서만 살아갈 거야. 사랑합니다.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거기서 냄새를 풍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도 정기를 받아야 됩니다. 보다 오래된 사람들이 거기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세계!

선생님도 지금 새로운 세계로 더욱 뒤집어진 것입니다. 더욱! 계속 뒤집어져서 가고 있습니다.

옛날의 그 생각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섭리 편 것을 어린아이같이 폄하하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공생애 역사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애 역사는 날아다니는 역사입니다. 아주 영적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책도 쓰고.

반드시 거기서 냄새를 풍기니 거기서 정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새로 온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받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십시오.

10대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거기서 새로운 역사의 정기를 받아야지, “아 우리도 젊었을 때는 저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받고 배우고 다시 개조하고 뒤집어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봄으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설교를 들어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답답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불을 받아요! 다 탄 나무는 이제 타는 나무에게 가야만 다시금 숯불이 확 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역사이니깐 그렇게 하도록.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봄으로서 다시금 은혜를 받고 새로운 역사를 펴듯이,
이 시대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말고 힘내라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힘 빠진 사람들 다
다시 살릴 테니까. 알겠습니까. 계속 뛰고 달리고 불 받고, 열심히 하고 전도
하고, 생명을 낳고! 애기 안 낳으면 큰일 나니까 자꾸 복음을 전하고.

하나 앞에 하나씩 전하면 교회가 수백 개 불어나는데 왜 못합니까? 20년 뽀
것만큼 하니 꼭 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했으면 아기를 낳을 것이 아닙니까. 사랑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다면 아
기 보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
웃으면서~ 다 뒀습니다. 안녕~~